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20. 12. 15)
제2020-12월호(통권 61호)

Sport Industry

SI 포커스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로나19 팬데믹과 스포츠산업의 변화

김 상 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 태 중(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스포츠산업 피해현황과 소비변화
Ⅲ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스포츠산업의 공급과 수요를 구분하여 코로나19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스포츠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분야에서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수요분야에서 스포츠소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및 격리자·해제자 추세를 살펴보았다. 둘째, 스포츠산업 피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산업체 폐업률 추이 및 폐업률 상위 20개 업종을 분석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체 휴업현황 및 휴업기간을 살펴보았다. 넷째, 스포츠소비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시설과 용품 소비를 구분하여 전년대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 고용 및 운영현황 조사」와 국내 여신전문금융사인 신한카드사의 스포츠 소비결제 데이터로 비교기간은 2020년 1주부터 40주이며 전년대비 증감률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살펴보면 2~5월 대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었고 이후 확진자수는 줄어들었지만 8월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감염확산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된 이후 10월에는 일별 확진자수가 약 100명 내외로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9년 코로나19 이전 1년간 월평균 폐업률은 0.27%로 나타났으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8개월간 월평균 폐업률은 0.49로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산업 업종별 휴업 현황은 스포츠시설업 7.4%, 스포츠용품업 2.3%, 스포츠서비스업 2.4%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전체 휴업 비중은 4.4%로 조사되었다. 넷째,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액 증감현황은 2월(-42.7%)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41.5%), 7월(-40.7%), 3월(-4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 소비(시설+용품)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4월까지는 전년대비 스포츠 소비가 전년대비 소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2020년 5월 이후에는 전년대비 스포츠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20년 5월 재산지원금 교부가 일정수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0년 8월 코로나19 재 확산이 시작된 이후 또다시 스포츠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월에 이르러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양상을 보였다. 여섯째,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스포츠소비(2020년 9월 기준)는 -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시설이 -10.1% 감소하고, 스포츠용품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9월 기준 전반적인 스포츠 소비경향을 살펴보면, 실내 스포츠시설 소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외 스포츠시설 및 관련 용품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산업 분야는 확진자 증가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을 갖춘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Ⅰ.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하였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염병 세계 대유행 '팬데믹(pandemic)' 단계에 돌입하였음을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감염 환자가 확인된 이후 특정 종교단체와 이태원 클럽 등에서 집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대유행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지만 K-방역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으로 확진자 증가세를 완화시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막을 수가 없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입은 감소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그나마 위험의 시기를 버틴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 파급력이 큰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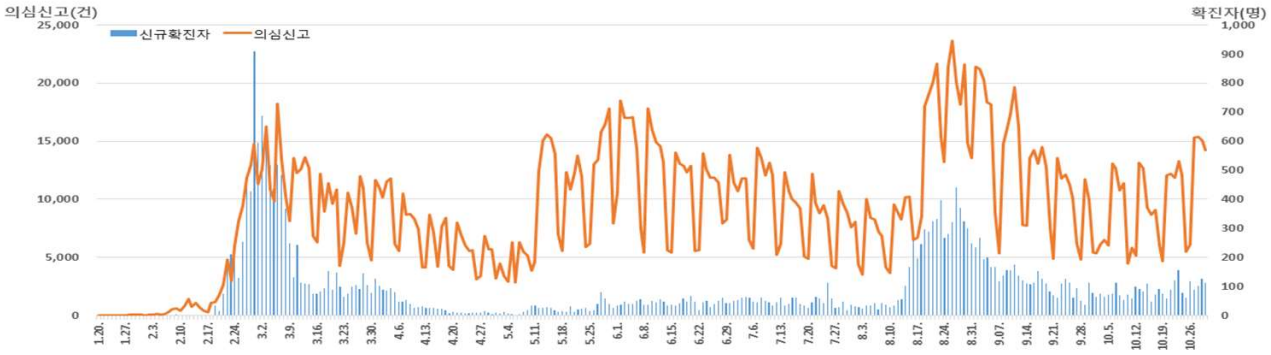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늘어나는 감염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스포츠산업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포츠산업 시장의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약 53조 592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약 33.8%의 감소를 예상하였다. 특히, 집단 및 대면활동 기반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회원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휴업 혹은 폐업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또한 소비자들의 스포츠소비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스포츠 소비는 감소하였고,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교부 이후 전년 대비 스포츠소비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8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스포츠 소비는 다시 감소기로에 직면하였다. 이후 10월 스포츠 소비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8월 재 확산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거 메르스(MERS)와 사스(SARS) 사태 때와 같이 금방 사라질 줄만 알았던 코로나19는 발생 후 어느새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는 스포츠산업 공급 및 수요시장 모든 측면에 새로운 변화양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공급 및 수요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스포츠산업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분야에서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수요분야에서는 스포츠 소비현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코로나19 팬데믹

1)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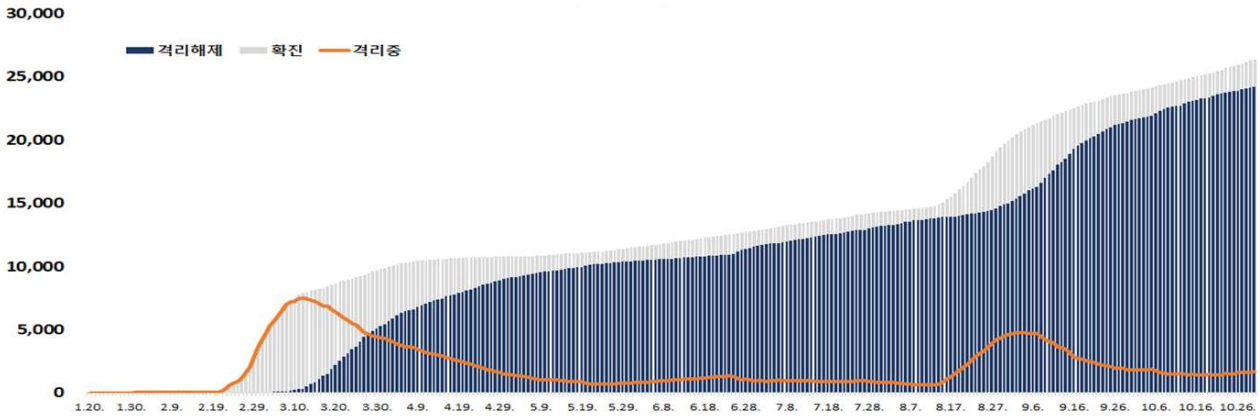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처음 발생하였다. 2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구시에서 특정 종교집단 감염과 이태원 클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이후 확진자수가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었지만 8월 10일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감염자 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이후 10월에는 확진자수가 100명 내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었다<그림 1>.



<그림 1> 일일 의심신고 및 확진자 현황

2) 코로나19 격리자(해제자) 추이

2020년 3월 3일 총 누적 확진자수는 5,000(41)명을 넘었으며, 이후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한 달여 만인 4월 2일 누적 확진자수는 10,000(6,021)명을 초과하였다. 이후 9월 1일 누적 확진자수는 20,000(15,356)명을 넘었으며, 10월 15일 25,000(23,180)명을 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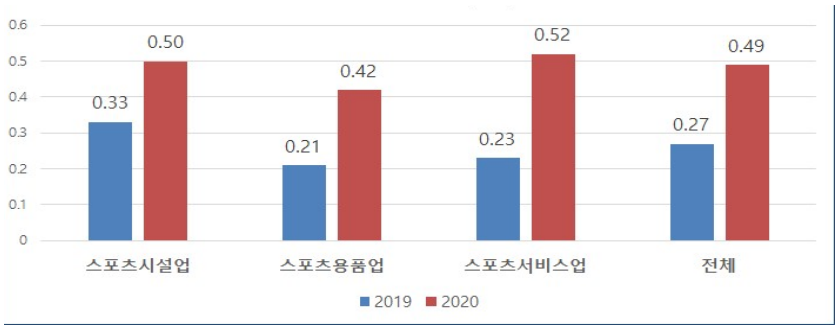
<그림 2> 일일 누적 격리중 및 격리 해제자 현황

Ⅱ. 스포츠산업 피해현황과 소비변화

1. 스포츠산업 업종별 폐업 현황(공급)

1) 업종별 폐업 현황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코로나19 이전 1년간 월평균 폐업률은 0.27%로 나타났으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8개월간 월평균 폐업률은 0.49로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스포츠시설업 월평균 폐업률은 0.50%으로 2019년 0.33%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스포츠용품업은 0.42%로 전년대비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스포츠서비스업은 0.52%로 전년대비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업종 중 스포츠용품업(0.50%)과 스포츠서비스업(0.52%)의 폐업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스포츠산업 월평균 폐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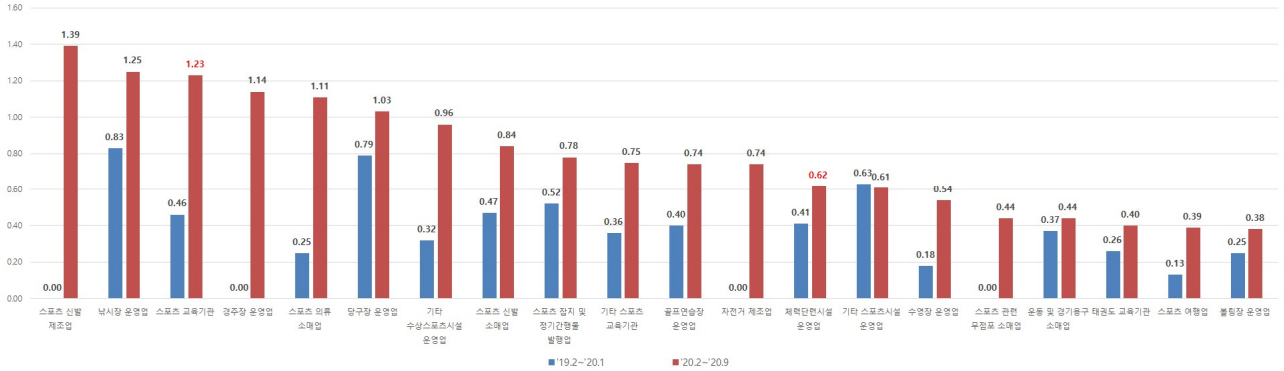
2) 업종별 월별 폐업률 추이

스포츠산업별 월별 폐업률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4>와 같다. 우선 스포츠시설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6월 0.75% 까지 상승 후 8월 0.37%까지 하락하였으나 9월 다시 0.51%로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스포츠용품업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2월 0.8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9월까지 0.11~0.54% 구간에서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서비스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8월 0.75%까지 상승 후 9월 0.2%까지 하락하였다.

3) 월평균 폐업률 상위 20개 업종

월평균 폐업률이 높은 세부업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스포츠신발제조업(1.39%), 낚시장운영업(1.25%), 스포츠교육기관(1.23%), 경주장운영업(1.14%), 스포츠의류소매업(1.11%), 당구장운영업(1.03%) 순으로 1% 이상의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다양한 세부업종에 걸쳐 높은 폐업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년대비 높은 폐업률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휴업권고) 업종인 스포츠교육기관(1.23%)과 체력단련시설업(0.62%)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그림 4> 스포츠산업별 월평균 폐업률 추세(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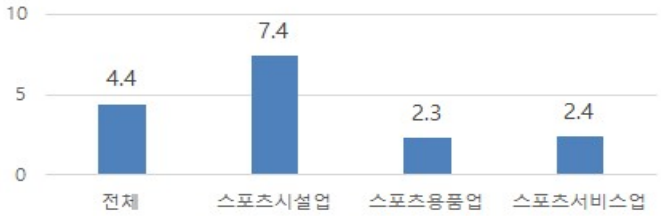


<그림 5> 스포츠산업별 월평균 폐업률 상위 20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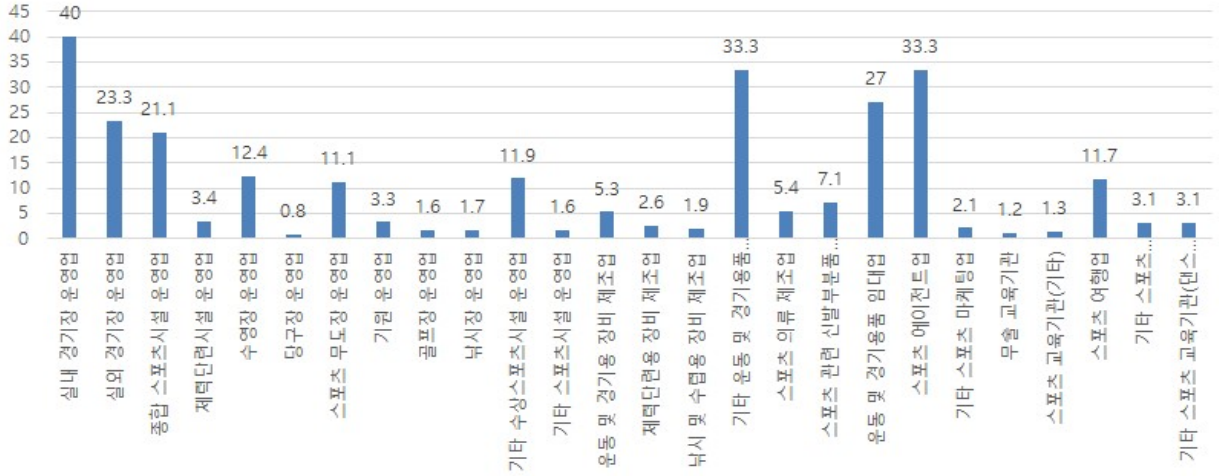
2. 스포츠산업 휴업 현황

1) 업종별 휴업비중

산업별 휴업비중(2020년 10월 셋째 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휴업률은 스포츠시설업(7.4%), 스포츠용품업(2.3%), 스포츠서비스업(2.4%)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휴업 비중은 4.4%로 조사되었다<그림 6>. 세부업종별로는 실내경기장운영업(40%), 기타운동 및 경기용품업(33.3%), 스포츠에이전트업(33.3%), 운동 및 경기용품임대업(27%), 실외경기장운영업(23.3%),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21.1%)의 휴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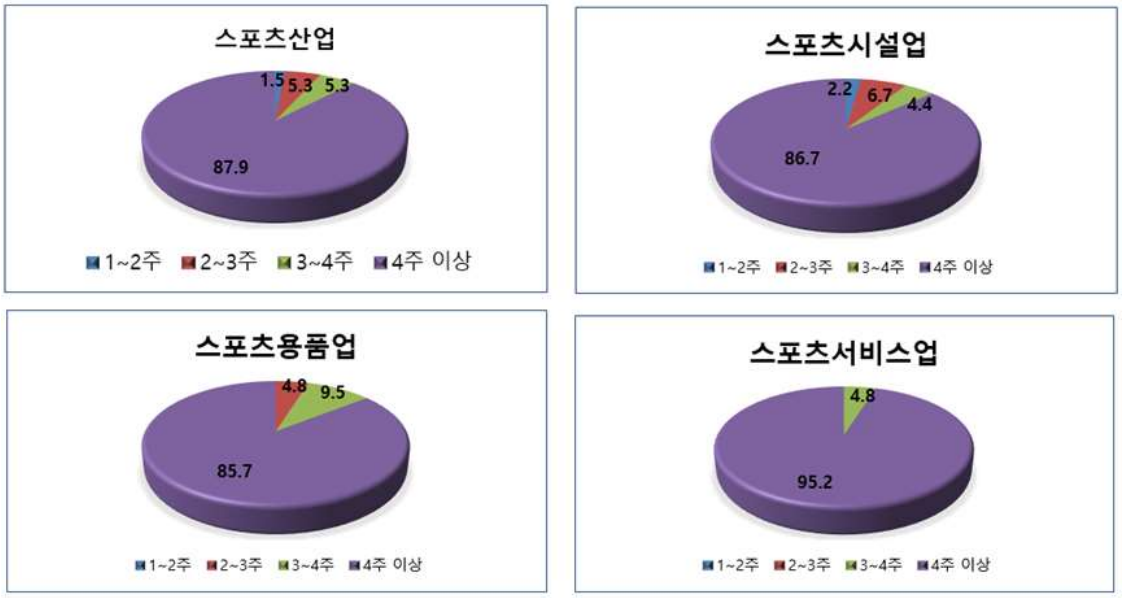
<그림 6> 업종별 휴업비중(2020년 1월 셋째 기준)



<그림 7> 세부업종별 휴업비중

2) 휴업사업체의 휴업기간 비중

휴업사업체의 휴업기간 비중을 보면<그림 8>, 전체 스포츠산업의 87.9%가 4주 이상, 5.3%가 3~4주 이상, 5.3%가 2~3주 이상, 1.5%가 1~2주 이상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시설업의 86.7%, 스포츠용품업의 85.7%가 4주 이상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100%가 3주 이상 휴업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휴업기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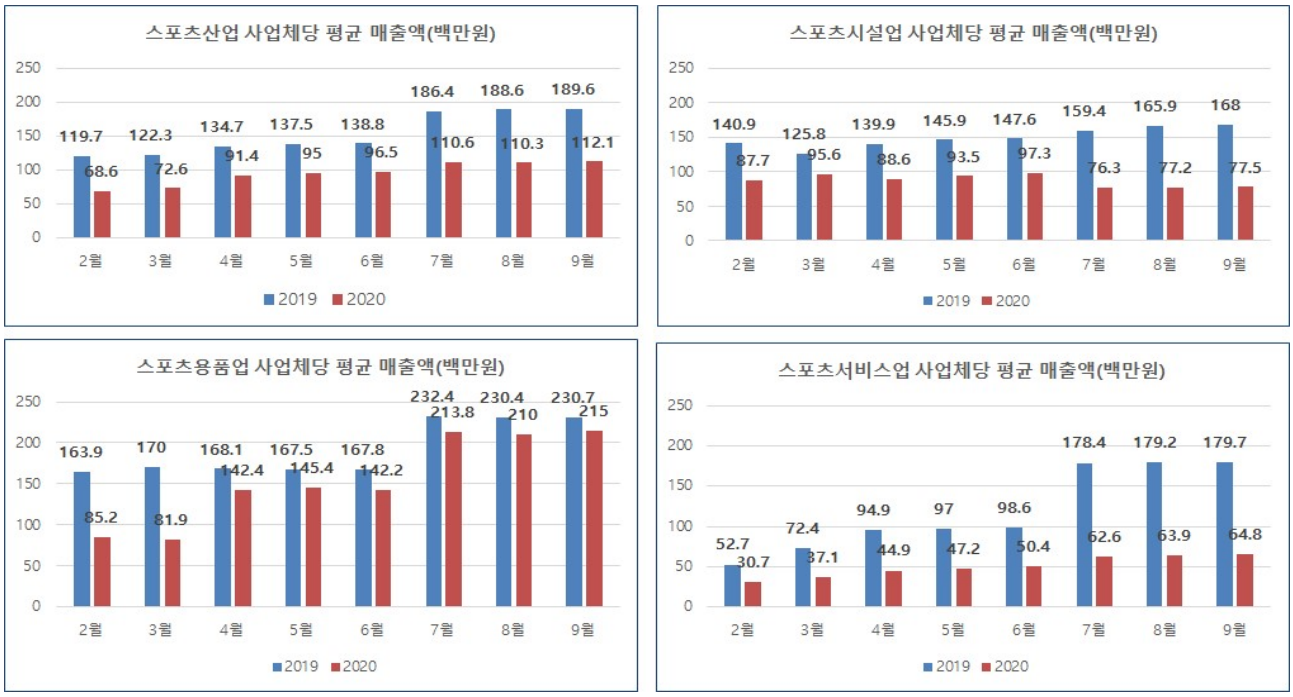


<그림 8> 업종별 휴업기간 비중

3. 스포츠산업 매출액 현황

1) 사업체당 매출액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액 증감 현황은 2월(-42.7%)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41.5%), 7월(-40.7%), 3월(-4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시설업의 매출액 증감 현황은 9월(53.9%)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53.5%), 7월(-52.1%), 2월(-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업의 매출액 증감 현황은 3월(-51.8%) 감소폭이 가장 크고, 2월(-48.0%), 4월(-15.3%), 6월(-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감 현황은 7월(-64.9%)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64.3%), 9월(-63.9%), 4월(-5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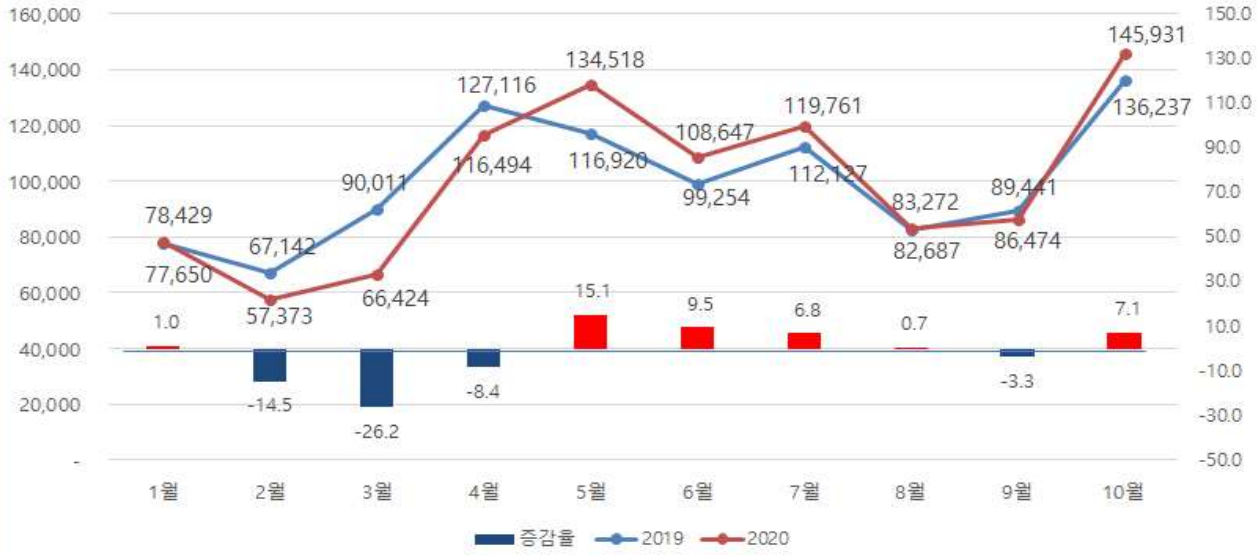


<그림 9> 업종별 매출액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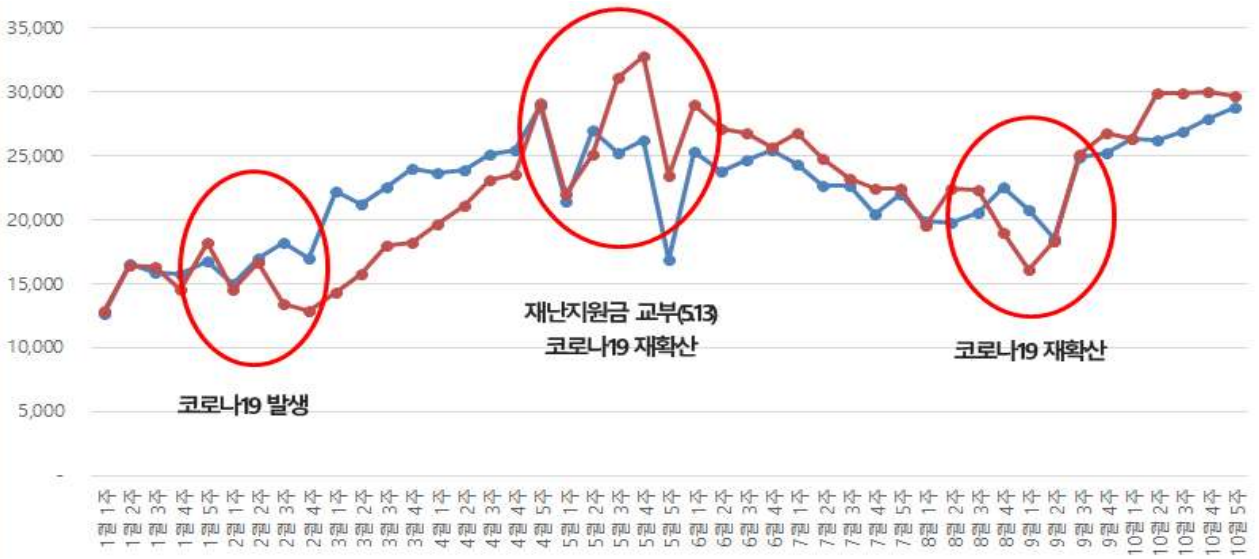
4. 스포츠 소비액 현황(수요)

1) 스포츠 소비(시설 이용액+용품 소비액) 현황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 소비(시설+용품) 증감률을 살펴보면<그림 10 및 11>,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대비 스포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14.5%), 3월(-26.2%)까지 하락하였으나 5월 재난지원금 교부가 실시된 이후 전년대비 스포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8월 코로나19 재 확산이 시작된 이후 또다시 스포츠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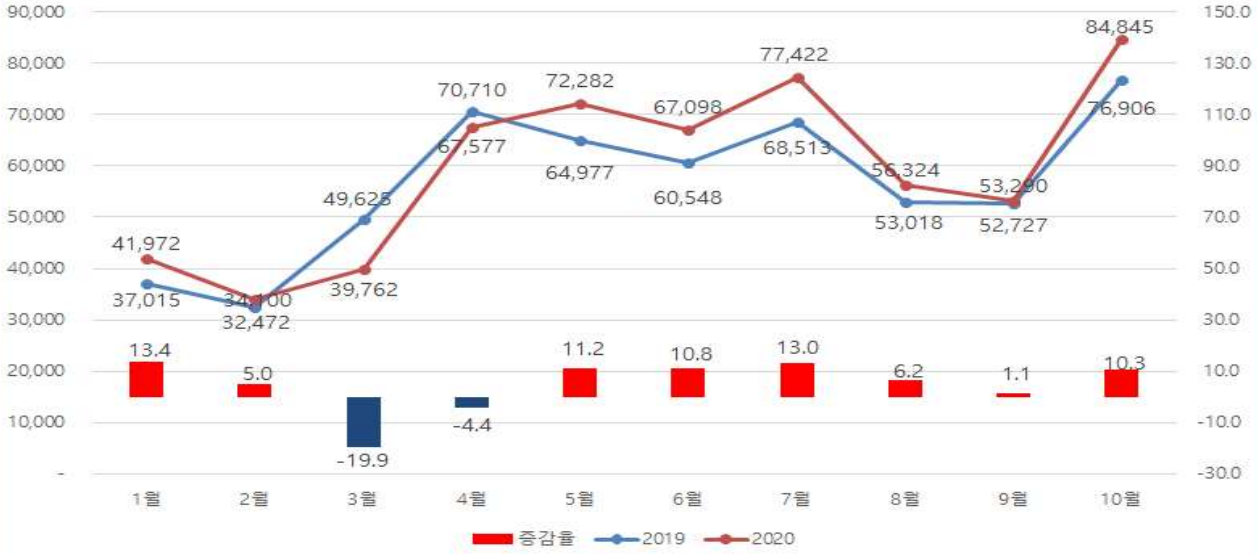
<그림 10> 스포츠 소비액(시설 이용액+용품 소비액) 월별 현황



<그림 11> 스포츠 소비(시설 이용액+용품 소비액) 주차별 현황

2) 스포츠시설 이용액 추이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시설 이용액 증감률을 살펴보면<그림 12>, 1~2월은 전년과 비교할 때 스포츠시설 이용액이 증가하였지만, 1차 대유행 시기였던 3월과 4월에는 각각 -19.9%, -4.4%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후 5~7월까지 11.2%~13.0%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고, 8~9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이용액이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과 대비해서는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10월에는 10.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2> 스포츠시설 이용액 추이

3) 스포츠용품 소비액 현황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소비(용품) 증감률을 살펴보면<그림 13>, 코로나가19가 시작된 1월에는 전년대비 -10.3%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후 2월 -32.9%, 3월 -34.0%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으며, 3월에는 -13.3%의 하락률을 보여 전년대비 감소세가 완화되었다. 이에 반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5월(19.8%)~6월(7.3%)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7~9월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재 확산됨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후 10월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3.0%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그림 13> 스포츠용품 소비액 추이

5. 스포츠 소비액 현황(2020년 9월 기준)

2020년 전체 스포츠 소비액(2020년 9월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시설 이용액은 -10.1% 감소하였고, 스포츠용품 소비액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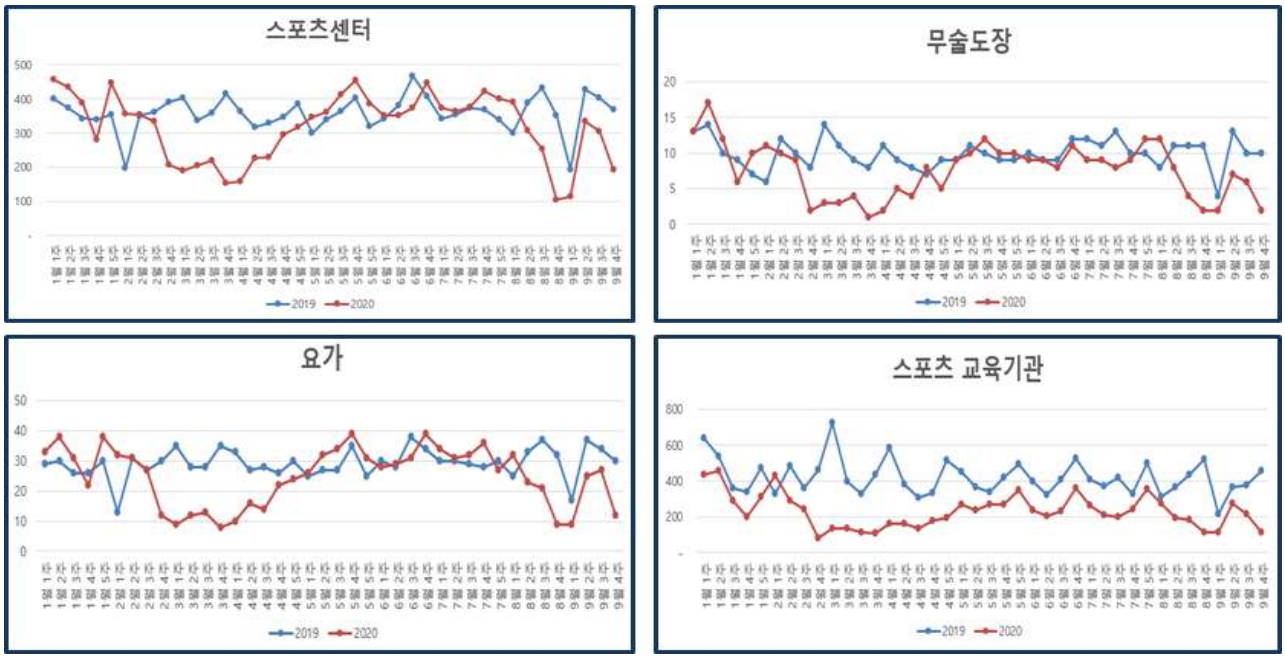
<표 1> 2020년 기준 전년동기 대비 스포츠 소비액 증감액(2020년 9월 기준)

No.	소비 유형	업종분류	표본 수 ('20.8월 기준/개)	20년 증감여부 (19년 대비)	19년 대비 증감율 (%)	2019년 실적(억원)	2020년 실적(억원)	증감액 (억원)
1	시설	스포츠센터	23,908	감소▼	-11.5	14,359	12,712	- 1,648
2		당구장	11,962	감소▼	-2.2	1,797	1,758	- 39
3		실내골프장	6,837	증가▲	19.2	5,620	6,701	1,081
4		스포츠강습	5,444	감소▼	-40.6	2,988	1,773	- 1,214
5		요가	2,754	감소▼	-15.0	1,174	998	- 176
6		무술 도장	1,336	감소▼	-23.9	399	304	- 95
7		볼링장	1,063	감소▼	-17.6	2,207	1,818	- 389
8		실외골프장	876	증가▲	15.7	23,975	27,750	3,774
9		탁구장	869	감소▼	-21.4	64	50	- 14
10		수영장	568	감소▼	-56.7	1,064	460	- 604
11		실내야구연습장	402	감소▼	-33.9	426	281	- 144
12		테니스장	301	감소▼	-23.9	157	120	- 38
13		레저-기타	237	감소▼	-30.2	523	365	- 158
14		스포츠교육기관	39,484	감소▼	-44.8	16,827	9,283	- 7,544
소계			96,041	감소▼	-10.1	71,581	64,374	- 7,208
1	용품	스포츠용품	13,372	감소▼	-9.3	12,946	11,744	- 1,201
2		스포츠의류	4,124	감소▼	-15.7	8,621	7,271	- 1,350
3		자전거	3,293	증가▲	57.4	1,558	2,452	894
4		낚시용품	2,121	증가▲	25.9	1,144	1,441	296
5		골프용품	1,954	증가▲	13.8	1,904	2,167	263
6		수중장비보트	639	감소▼	-2.1	79	77	- 2
소계			25,503	감소▼	-4.2	26,252	25,152	- 1,100
합계			121,544	감소▼	-8.5	97,833	89,526	- 8,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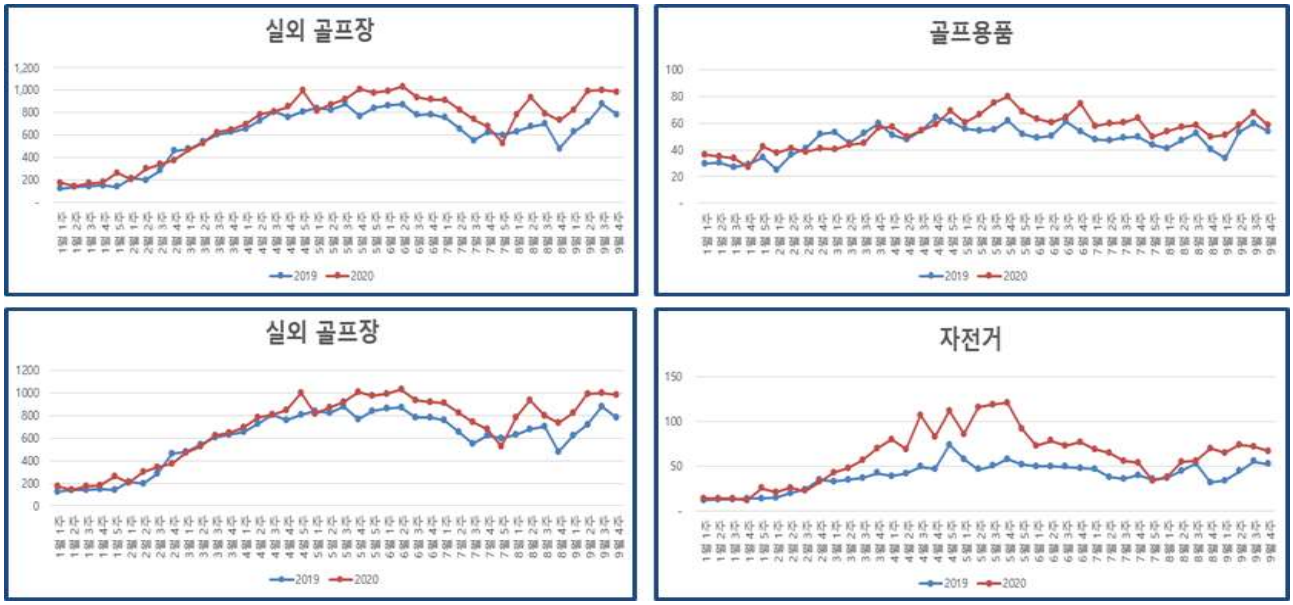
한편, 2020년 9월 기준 스포츠 소비액을 살펴보면<그림 14>, 실내 스포츠시설 소비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외 스포츠시설 이용 및 관련 용품 소비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액 증가를 보인 업종은 자전거(57.4%), 낚시용품(25.9%), 실내 골프장(19.2%), 실외골프장(15.7%), 골프용품(1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액 감소를 보인 업종은 수영장(-56.7%), 스포츠교육기관(-44.8%), 스포츠강습(-40.6%), 실내야구연습장(-33.9%), 레저-기타(-30.2%) 스포츠센터(-11.5%), 무술도장(-23.9%), 테니스장(-23.9%), 탁구장(-21.4%), 스포츠의류(-15.7%), 요가(-15.0%), 스포츠용품(-9.3%), 당구장(-2.2%), 수중장비보트(-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스포츠 소비액 증감률(2020년 9월 기준)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무술도장, 스포츠교육기관, 요가(기타스포츠교육기관) 업종에서 소비 급락 현상이 나타났고<그림 15>, 실외 골프장, 실내 골프장, 골프용품, 자전거 용품은 전년대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그림 15> 스포츠 소비액 하락 업종(2020년 9월 기준)



<그림 16> 스포츠 소비액 증가 업종(2020년 9월 기준)

Ⅲ.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스포츠산업의 공급 및 수요현황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지형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급 분야에서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을 비롯한 세부업종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요 분야에서 스포츠시설 이용액과 스포츠용품 소비액을 변화추이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1년간 월평균 폐업률은 0.27%로 나타났으며, 2020년 코로나19 이후 8개월간 월평균 폐업률은 0.49%로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스포츠시설업 월평균 폐업률은 0.50%으로 2019년 0.33%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스포츠용품업은 0.42%로 전년대비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스포츠서비스업은 0.52%로 전년대비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산업 업종별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시설업 7.4%, 스포츠용품업 2.3%, 스포츠서비스업 2.4%의 휴업률이 집계되었고 전체 휴업 비중은 4.4%로 조사되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실내경기장운영업(40%), 기타운동 및 경기용품업(33.3%), 스포츠에이전트업(33.3%), 운동 및 경기용품임대업(27%), 실외경기장운영업(23.3%),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21.1%)의 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휴업사업체의 휴업기간 비중을 보면, 전체 스포츠산업의 87.9%가 4주 이상, 5.3%가 3~4주 이상, 5.3%가 2~3주 이상, 1.5%가 1~2주 이상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시설업의 86.7%, 스포츠용품업의

85.7%가 4주 이상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100%가 3주 이상 휴업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휴업기간을 보였다.

넷째,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매출액 증감 현황은 2월(-42.7%)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41.5%), 7월(-40.7%), 3월(-4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시설업의 매출액 증감 현황은 9월(53.9%)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53.5%), 7월(-52.1%), 2월(-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업의 매출액 증감 현황은 3월(-51.8%) 감소폭이 가장 크고, 2월(-48.0%), 4월(-15.3%), 6월(-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감 현황은 7월(-64.9%) 감소폭이 가장 크고, 8월(-64.3%), 9월(-63.9%), 4월(-5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2019년 대비 2020년 스포츠 소비액(시설 이용액+용품 소비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대비 스포츠 관련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해 5월 재난지원금 교부가 실시된 이후 전년대비 스포츠 소비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스포츠시설 이용내지 관련 용품소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8월 코로나19 재 확산이 시작된 이후 스포츠 소비액은 재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월에 이르러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2020년 전체 스포츠 소비액(2020년 9월 기준)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포츠시설은 -10.1% 감소하였고, 스포츠용품은 -4.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스포츠 소비액 수준을 살펴보면, 실내 스포츠시설 소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외 스포츠시설 및 관련 용품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액 증가를 보인 스포츠관련 업종으로는 자전거(57.4%), 낚시용품(25.9%), 실내 골프장(19.2%), 실외골프장(15.7%), 골프용품(13.3%) 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대규모 소비액 감소를 보인 업종은 수영장(-56.7%), 스포츠교육기관(-44.8%), 스포츠강습(-40.6%), 실내야구연습장(-33.9%), 레저-기타(-30.2%) 등 주로 실내에서 스포츠 활동이 전개되는 업종들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국내 스포츠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집단감염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전거·실외골프장, 낚시용품, 골프용품 등 실외 스포츠 관련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실내 시설 기반 스포츠참여 활동은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반 스포츠 참여자 사이에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실외 스포츠 종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2020년 10월 이후 실내·외 시설업과 용품업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스포츠산업의 균형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 실내 활동증가 등으로 인해 집단 유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 모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Sport Industry SI 포커스

발간목적:
SI 포커스의 발간목적은 국내 스포츠산업 동향에 대한 부문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부문별 지원전략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발행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상훈(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책임연구위원)
유의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지명(스포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민수(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경진(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신성연(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